매년 수십여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뉴욕 맨하튼 5번가의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 /뉴욕=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4〉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❸ 운림동 미술관 거리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전통문화관 등 문화명소들이 밀집된 광주시 동구 운림동 미술관 거리 전경.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문화공간들이 어우러진 장소성을 특화시킨 콘텐츠를 통해 관광명소로 가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무등산 길 따라 예술향 그윽~'제2 예술의 거리'

## 탁트인 풍광에 미술관·조각공원 등 문화공간 다양

## 휴식공간 연계 프로그램·콘텐츠 없어 시너지 못내

## "시민 참여형 콘텐츠 강화해 명품 예술촌으로 키워야"

미국 뉴욕의 심장인 맨하튼 5번가는 '명품거리'로 유명하다. 루이비통, 티파니, 샤넬 등 명품매장들이 몰려 있는 탓에 일년 내내 쇼핑객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이 '쇼핑 1번지'가 일 년에 한번 예술의 거리로 옷을 갈아입는 날이 있다.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 열리는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museum mile festival)'이다.

뮤지엄 마일은 내로라하는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등 9개의 미술관들이 밀집해 있는 5번가의 82가에서부터 104가까지 아우르는 말로, 지난 1978년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미술관들이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시장을 무료로 개방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렇다고 '프리 티켓(free ticket)'이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의 전부는 아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미술관 밖'에서 펼쳐지는 난장(亂場)이다. 축제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뮤지엄 마일은 자동차 대신 보행자들이 '접수'한다. 뉴욕시가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각 미술관들은 이 날을 겨냥해 특별기획전을 앞다투어 마련하고 재즈에서부터 브로드웨이 뮤지컬 넘버, 바이올린 선율까지 수십여 개의 공연들이 거리를 수놓는다.

또한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은 뉴욕시만의 '집안잔치'가 아니다. 매년 축제기간에 맞춰 이곳을 둘러보기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가일정을 잡을 정도로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을 전후해 이들 미술관들을 관람한 관광객만 줄잡아 120만 명. 비록 3시간동안 열리는 '반짝 이벤트'이지만 뮤지엄 마일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뮤지엄 마일 효과'는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꿈꾸는 광주에겐 더할 나위없는 벤치마킹 대상이다. 몇 년전 부터 하나 둘씩 미술관과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제2의 예술의 거리로 떠오른 광주시 동구 운림동 의재로(일명 운림동 미술관 거리)가 뮤지엄 마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운림동 미술관 거리는 증심사 입구 속칭 배고픈 다리에서 의재 미술관 사이의 의재로 주변을 일컫는 곳으로 무등산 자락의 뛰어난 풍광과 예술공간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우라를 풍긴다. 현재 이곳에는 무등현대미술관, 우제길 미술관, 국윤 미술관, 인도박물관, 의재 미술관,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등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여기에 지난 3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관이 개관하면서 번듯한 '예술촌'의 면모를 갖췄다.

지난 2007년 서양화가 정송규씨가 건립한 무등현대미술관은 노출 콘트리트구조 2층 건물로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빼어난 디자인은 건물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이라 할만하다. 게다가 아담한 조각공원과 갤러리를 갖춘 서양화가 우제길 화백의 미술관과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화백의 예술혼이 깃들어 있는 의재미술관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린 갤러리'다.

하지만 운림동 미술관 거리는 빼어난 장소성을 살리지 못한 채 변방에 머물러 있다. 광주 사람에게 이곳은 무등산으로 가는 진입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십여 개의 아웃도어웨어 매장에는 등산객들로 북적거리지만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썰렁하다.

운림동 미술관 거리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을 끌어 모으는 랜드마크와 상설 프로그램, 콘텐츠 부족 때문이다. 의재미술관 등 몇몇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있지만 전시를 둘러본 후에는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상설공연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게 한계다. 일부 지자체들이 쇠락해가는 구 도심과 유원지 등을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명물로 되살려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때 유원지였던 안양예술공원의 경우 예술거장들의 작품을 등산로 주변에 설치한 '산속갤러리'로 예술촌으로 변신했는 가 하면 전주시 동문예술의 거리는 '거리의 악사들', '북 페스티벌' 등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와 퍼포먼스가 매주 토·일요일 펼쳐져 가장 '핫(hot)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운림동 미술관 거리의 미술관과 예술공간들의 네트워크 부재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의재로 일대 2만㎡ 부지에 국비 110억원과 시비 96억원 등 총 306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10만㎡ 규모의 아시아 창작예술촌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한국화와 국악, 문학 시설 등을 연계한 작가들의 레시던스 성격이 강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복합문화예술공원, 즉 아트밸리(Art valley)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무등현대미술관 정송규 관장은 "운림동 미술관 거리가 광주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 친화적인 장소성을 극대화시키는 야외 조각공원과 같은 랜드마크와 상설 공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광주폴리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제주도 현지 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 마진을 돌려드립니다】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등록번호 : 616-81-6823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
주소장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목포&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목 포 119,000원 녹 동 142,000원
가족끼리, 친목, 산악회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제주여행 다시찾을 수 있는 제주무궁화 관광이 되렵니다~
목포출발 『목카투어』 119,000원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2일째 :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 일요일 16:30 출발
★포함내역 :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입장료, 주차료
녹동(고흥)출발 『녹동투어』 142,000원
▶1일째 : 녹동남해고속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2일째 :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포함내역 :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입장료, 주차료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83,000원[주중+주중]
196,000원[주중+주말]
★유료할증료불포함★
[1박2일크루즈투어]85,000 (한라산 등반or1일 제주관광)
[3박4일크루즈투어]155,000 (한라산 등반+2일 제주관광)
[2박3일크루즈+항공투어] 153,000(주중) / 173,000(주말) ★유료할증료 불포함★
제주도 매일버스일주관광 1일 20,000원 / 2일 30,000원
한라산 매일 셔틀버스 운행 한라산 등반 15,000원
제주도 배편 최대 할인 목포, 녹동, 완도, 장흥, 삼천포, 인천
제주도 패키지 2회 이용시 2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증정or 여행금액 할인 (택, 2인이상 예약시 1인에 한함)
항공/배편/호텔/펜션/렌트카 예약 입금계좌안내 : 신한 100-024-625912 예금주 : (주)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협찬 : 남해고속씨월드훼리



숯불구이전문점
나는 한돈이다 KOREA PORK
파격지원 간판교채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주지역내 10개 점포에 한정
대박나는 체인사업!!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박사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소자본으로 대박신화를 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
• 가맹비, 로열티 일체없음
• 인테리어 비용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최소금액 최소비용으로
딱! 2분이면 OK!! 타지않고 완벽하게 빠른시간안에 구워지는 기발한 아이디어 숯불구이 전문점
기름기 많은 오리와 삼겹살을 타지 않게 숯불에 구워내는 초 대박 숯불구이 아이템!! 기름은 쏴악~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어 부드럽고 고소한 숯불구이의 참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한돈은? 품질좋은 국내산 돼지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100% 진짜갈비와 생삼겹만 취급하는 국내산전문점 입니다.
취급메뉴
돼지갈비숯불구이(국내산) 250g
생삼겹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갈매기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생 오 리숯불구이(국내산) 200g
점심특선
갈비정식 5,000원 냉면 4,000원
정량판매(1인분) 7,000원
포장판매 take out 5,500원
체인점 문의 062-265-8900 직 통 011-803-2612
읽어보십시오! 한돈으로 성공하실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사육되는 순수 국내산 정품 돼지만 매일 작업하여 취급하므로 타업체와 원자재 비교 불가합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신개념 아이디어 숯불구이 기계는 원적외선이 사방에서 방출되어 2분만에 순간적으로 구워지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고 인건비 절감효과등이 탁월합니다.
타업종으로 전환시에 발생하는 비용중 가장 큰 금액인 간판교채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므로 쉽게 업종전환을 하실 수 있으며 업주께서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하실 경우 최소, 최저의 비용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본사인 (주)사랑방유통은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외식 전문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체인점 관리와 물류를 책임집니다.
오치본점 5월 오픈 성업중! 062-264-5343
일곡점 OPEN 062-573-5204
교대점 OPEN 062-516-6617